戰勢不振。三星

0

張耳妥協成

The Morea Baily News. Scoul, Korea, Saturday, Nov. 7th, 1925. THE UNMANNERY TIGE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The priest, very much surprised and indignant, protested against such vile ingratitude. To say the least, it was very bad manners and entirely against the law of the mountains, and he appealed to a big tree to decide between them. The spirit in the tree spoke through the

rustling leaves and declared that the man should go free and that the tiger was both ungrateful and unmannerly. Old Mountain Uncle was not satisfied yet,

especially as the priest was unusually fat and would make a very good dinner. However, he allowed the man to appeal once more and this time to a big rock. "The man is certainly right venerable

Morntain Uncle, and you are wholly wrong," said the spirit in the rock. "Your master, the Mountain Spirit, who rides on the green bull and the die-bold horse to punish his enemies, will certainly chastise you if you devour this priest. You will be no fit messenger of the Mountain Lord if you are so ungrateful as to eat the man who saved you from starvation or death in the trap. It is shockingly bad manners even to think of such a thing." The tiger felt ashamed, but his eyes still

glared with hunger; so, to be sure of raving his own skin, the priest proposed to make the toad a judge. The tiger agreed.

But the toad, with his gold-rimmed eyes, looked very wise, and instead of answering quickly, as the tree and rock did, deliberated a long time. The priest's heart sank while the tiger moved his jaws as if anticipating his feast. He felt sure that Old Speckled Back would decide in his favor.

호령이 이야기 (三)

承。

言無

【義州】 昨年九月早14年 野田酒類用石製パー年号のの製州郡の五石の 全吐價格の無慮五萬五石の十七圓の中五億出版

飲面長産業視祭 一日間の職士七個面の面長一同職職十七個面の面長一同職職十七個面の面長一同 一日間の職定の三四鮮地方 一日間の職定の三四鮮地方 一日間の職定の三四鮮地方 一日間の職定の三四鮮地方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間の間の面長一同 一日で、一月二日の高敏岩 一日で、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一月二日の高敏岩

元山牛機開應式の別席下の無底式の設定を対象の対所下の無底式の設定を対象を対する。

大本 (銀四村) 中望人秀研引 日時宗太郎) (14)の早 ネコート 登場 での (佐藤) 足外 野中 書き

心生者를上五

**五千圓ª慰藉請求** 

당시는 김장창(金曼底)의 물면하불이나의 일시소 당신나 소방조와 근갖자

人夫一名慘死 一路工事中

資投作種文

計中 随重創作으로 各種投稿無觸限制

(僧原條)부근일대에 맛는히 (僧原條)부근일대에 가수치 전자나차 한자나차 기가드통경(東京)사는잡희상 기가드통경(東京)사는잡희상 기다니다가 치움에 못이기여 ひきの立むないのの 七年のみ 교육이 배우볼편하게되얏터라 첫 역 교육이 배우볼편하게되얏터라

이 기도등정(東京)사는장화상 理問)비명의보이로질을일코 다나니다가 치용에 목이기여 트리역철명하았다더라 트리역철명하았다더라 이 사용이 무리된 기억 이 사용이 무리된 이 왕는데 이 사용이 다른이 와는데 이 수정하는자가 작고 느라가는 첫 타리 비용의 보다 등이 다더라 이 수정하는자가 작고 느라가는 첫 하면성장 (網走富良野天慶 타이라더라 (나우엔면보) 바이라더라 (나우엔면보) 바이라더라 (나우엔면보)

그 이번에설치된 핵대공기 주식회 사조선용장 (被鹽室無株大會社 神鮮工事)에대한 수도한수(給 사)의기회를 필요하다 수도부 설요등을 이미원지를 기요하다 수도부 인원부(仁川府)에교월증인모양 인데 부슐비 약이만원인단보상 환에의한면(面)차인급이로셋이 지을증당할게 되어라더라

부장연 가수군막의장 (嘉 고 려포하리간상원계송(杉原界 大原町) 에서순사살해와강 雄〉순사들죽이고 도망하야증되건 이었는다 범인으로한 의견추었던증 었던 잡화상에서 본 (顧西村) 다음시중래랑 피무는옷이로서 또강도(强整)임타宗太郎) (국)이로 자기 하고 다음나는것을 레포하얏터 교등 (佐藤)모와 달다름을 라(복강) 中國 中 가 傷兒 지난달이십달달에 함남 대오십오조(咸南第五十丘號)자동차가 당보양덕군구읍 (平南陽德郡會의로 길에서 등는아이를 세명이나치였는데최순정(崔淳敏)(七)은 가실과 말을 당시장하여 당대 관계의 원(陽西醫院)에서송 당시 자연기다더라(양덕)

勞働夜學新設

주선한결과로

문리조심씨의

東萊釜谷에

巡查殺害後强盗

らとないの いいいとかか

青陽에火災 北面釜谷里)에서는 문기호(印원 北面釜谷里)에서는 문기호(印원 수조희원(文基浩李元柱射展元) 수조희원(文基浩李元柱射展元) 하고 급월조순에모동야한(勞勵 夜舉) 등실립하야 일이산한급으로나누당벌서부러교수하는대남

구용면 롱끼리(關總郡九龍面龍 屋)(盟)시나일만 무산자에게치 료를 무료도하여출원아니라 사 마진단치(死亡診斷書)등도도을 박지안한 하여줌으로 부끈인사 는그의 미덕을장송키 마지안는

전임한 전을 악이지못하였다.
이 에서생지바아이는 이상파가리하는중이에서생지바아이는 이상파가리하는중이 대의된것인듯 할뿐아니라 보를 자대로 명에 취손되었다. 할뿐아니라 되 등 아내로 명에 취손되었습으로 『주사노』 문형 테기하겠다한주 데일회장 명의 이것으로써 폐명되었다.

이 무엇하야 다른해보다 시 교 이 무엇하야 다른해보다 시 교 이 무엇하야 다른해보다 시 교 등로 가보니 外 마루션에 노자기 막이 가보니 外 마루션에 보다 지 안키에 되 를 알귄히 치위노했다 그러나자 기방압 이 약권히 치위노했다 이 역 이 원선한생각이 참가되었다. 일을을 개이 고책상우 이 원선한생각이 참간들었습니다.

스나 가는데에 『되신듯살피 스나 가는데에 『되신듯살피 스나 기생생하는 그리나 죽으되이는 그러나 기생생하는 말인지 또는사라이는 그리나 주은되어 무덤함하지 몰라 전하다 그리나 기생생하지 물을 보기 하다 가게 보인지 물을일이다 그리나 주으되이라 모인되지 물을일이다 그리나 주으되이라 모인되지 물을일이다 그리나 주으되이라 가게 보이러 기를 가는 등에 서 되 말인지 라라고 일러를 보기 다른 건강하다 가지 말리를 보기 다른 건강하다 가지 말리를 보기 다른 말인지 다는 그 사이 이 말로 보기 다른 말인지 가지 말리를 보기 다른 말인지 다는 그 사이 되는 말이 보인지 가지 말리를 보기 다른 말이 보인지 다는 그 사이 되었다. 그 보이 되는 말이 되었다. 그 보이 되는 말이 보인지 다는 그 사이 되었다. 그 보이 되었

格稿品目藝 回辫文藝作品懸賞募集 問価単作の大権及「ひ四つ」酸表指載な 物館及演溯暑逝計中十八歲以下少年少女 氏名、年齡、及在醫學校名群紀計

日本各地の

大雪

表月から雑む州少等一對入同二 け로誌書 7 年 7 等 む選時十 1 片 2 結番 7 年 7 等 立選 1 日 1 日 1 生 書 4 適 女 5 로 品 9 で 3 と 7 で 3 と 7 で 3 と 7 で 3 と 7 で 5

왕복자 서 몸도프힐롯하야 오늘 은쉬이기로하였다 한대기로 또치가기야하겠니 나 지하며 실호데 첫지기야하겠니 나 서 인력기방으로 나가라고집 바탕으로나갔다 바탕으로나갔다 영준이는 곳나가서 한벌시아 입고 나갈까 버릇돈이 겨우 사실여원이 될까말까한데 겨우 오늘산다면 그래서야 당배스 뜨겁도만따려면 그래서야 당배스 모들은 사실 몸도모힘들었다면 오늘

우 웃 서 끄 라 십

트검인머리채를 피人빗나는 지 지당기로 쌓고를 피人빗나는 지 것을 서리서리감아노코 그우이 는단자처럼 집어노후 던지기언

밀치로 다음파기리 씨어있다 명준이는 참앗은한숨을 회 기를 가는 사람이 있다.

청의마음이 가난하오며 및봉 업사임을 김치원 보라 기록하 이로 대신하오니 혐의덕신듯 이로 대신하오니 혐의덕신듯 이로 이목도 해人빗보을까 다시하다

원군수위면평내리(水原郡水 전 에 사는 편 사는 편 산원 (石垣) 토수사 보이 아이라 하며 명조유 필위로 (貞操聚團嚴權料) 오코원로 (貞操聚團嚴權料) 오코원로 (貞操聚團嚴權料) 오코원로 (貞操聚團嚴權料) 오코원의로 (貞操聚團嚴權料) 오코원의로 (貞操聚團嚴權料) 오코원의로 (貞祖) 자연되었었는 원고의대리인 경미(赤尾)면 사는 피고면산 6 사동욕을 하하 원고 『추사노』는 아이를 배원고 『추사노』는 아이를 배원되고 되었다.

詐欺。日人

피해

자오백명명

虚偽廣告呈

고 가지라 아니힐수업다 살인되고라도함의 아시힐수업다 살인되다 하르므리 게상에나온 한 문을 시오하다 의 사람이 나온 기가리 모았습니다 하필그것은 웬일이 떠뜨다기어 모았스면 손에서 열리 이 보급하다 하면부자도 있는 이 상하거나의 보급하다 하면부자도 있는 이 상하거나의 다음 전 하면부자도 있는 이 상하기나의 다음 전 하면부자도 이 상하게 되었다.

일본대관 주길구상주길 (大阪世界삼량 (建遠隆三郎)은 작년 오월지작소(泰田製作所)라는간관으로 『메리앗스』 와 50월기자(機械) 판매를신 農會技手의失態

원는 시장에 서종이 행렬히불고 이 지원 등 이 원 등

成川에初雲 성천(成川)에 자명 성천(成川)에 **◆**集 會令

기에 누가 집어갓나하구말씀이 아요」 서 짜두맛을내려다보니가 기

테이지안한 こいり別分分

かりなら、年も